

# 생태숲 조성 자연 친화공간으로

## 전주시, 1억원 투입 풍납초등학교 800㎡ 규모 도시숲 조성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삭막했던 전주시 원도심 학교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생태 숲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남도송동 전주풍납초등학교에 800㎡ 규모의 생활 권 내 도시숲을 조성,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 놀이터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이들을 생태 숲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생물학적 부모이자 멘토인 부모교육, 아이들에게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전주시를 대표하는 보육정책이다.

원도심 가장자리에 위치한 풍납초등학교는 현재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넓지 않은 한 공간에 집중 설치돼 있는 데다 숲이 주는 그늘이나 자연놀이공간이 거의 없다.

또 놀이터 인접 공간에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차량출입이 잦은 삭막한 분위기에 아이들의 놀이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풍납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어린이 등 시민들이 학교에서 뛰어놀고, 그늘에서 쉬면서 자연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자연 속 친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풍납초등학교 공간에 풍부한 녹음을 주고 계절별 꽃이 피는 수목 15종을 식재해 다채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배우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녹색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시는 풍납초 의결수령 및 협약체결, 전주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디자인 자문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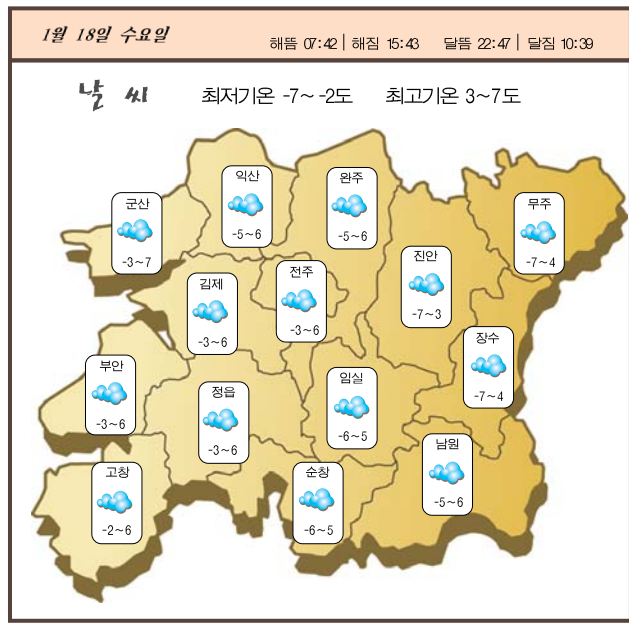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생활권 주변 자투리공간에 도시

공원과 도심숲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공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또 미래주역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어려서부터 생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동서학동 남고사 부근과 덕진동 조경단 옆에는 '박정발레숲'과 '임금남숲' 등 전주 아이숲 2곳을 조성키도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콘크리트 중심의 시민 생활권 곳곳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등 시민들을 위한 녹색 쉼터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면서 "도심 속 녹색공간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보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배움이 즐겁고 생활이 행복한 학교로 성장'

## 전주시 혁신지구내 개교 3년째 맞은 양현고



배움이 즐겁고 학교생활이 행복한 함께하는 학교를 추구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양현고등학교(교장 김갑식).

전주시 혁신지구내에 자리한 이곳은 올해부터 1, 2, 3학년층을 채울 만큼 아직은 신생 학교다.

하지만 양현고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끌어냈다.

무엇보다 단시간 내에 입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2015년 개교 당시만 해도 학생수는 교차 173명(1학년 6학급)으로 겨우 입학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양현고 1지방 신청 학생 수는 입학정원 310명을 초과한 322명이었다.

이는 단순히 입학정원을 채웠다는 의미를 넘어 양현고의 경쟁력 즉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첫 해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만 해도 학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해소하고 선호도를 높인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도 양현고의 이런 행보에 더욱 주목했다. 기를 養(양), 어질 賢(현) 즉 어진 인간을 길러내는 고등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개교 당시 학교 이름을 지어준 특

별한 인연이 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양현고의 성장 비결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는 양현고의 교육비전과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서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현고는 개교와 동시에 학교업무 최적화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분장이 '교육활동 지원실'과 '교육과정 운영실'로 구분, 행정적인 업무는 교육활동 지원실에서 전담하고 '교육과정 운영실'은 교과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무실무사를 2명 배치해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분담 교과교사가 일체

의 공문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도록 업무를 간소화했다.

또한 교직원간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실시 업무잘차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함은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현고는 특히 1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교사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카페(디담)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내용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수업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된다.

고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진

로 맞춤형 혁신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참학력 신장과 교사의 수업혁신을 위해 '진로맞춤형 자기개발활동'과 '배움과 성장의 날'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양현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과학·수학 이수단위를 45% 확대해 운영하고 다양한 과학체험활동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을 토대로 오로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양현고 기부에 충실하며 가고 싶은 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양현고의 내일이 학생들의 미래로 그려지고 있다.

/정해은기자

## 도교육청, 3월 초등 입학생 '책 꾸러미' 선물

전북도교육청이 3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동화책이 든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3억원을 편성해 3월 도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학생 1만5천명에게 동화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선물할 계획

또 나후턴 5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6개 학교에 도서관장서 구입비 9,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선 학교의 신장을 받아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 운영활동에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의 3% 가량을 학교도서관 자료와 도서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구입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회사서 7명을 배치, 일선 학교도서관의 장서 점검, 도서 재배열 등 업무를 지원하고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 중학생?고교생 인문학캠프도 운영한다. 교사동아리,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200팀), 중고 인문학 동아리(80팀), 학생 인문 글쓰기 동아리(80팀) 등에 대한 지원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억2,900만원을 지원해 43개 학교에 친일인명사건 규명하도록 했다.

/정해은기자

## 군산대 취업률, 3년째 전국지역중심대학 최상위권

군산대학교가 특화된 교육인증 프로그램과 선 순환적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운영하면서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 조사(2015년말 기준)'에 따르면 군산대학교의 2015년 졸업자 취업률은 62.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북권 국·사립대학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산대는 전국 지역중심대학 중에서도 3년째 취업률 최상위권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단과대별 취업률은 해양과학대학

이 70.6%로 가장 높고 자연과학대학 68.4%, 공과대학 66.2% 순이다.

또한 예술대학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59.3% 취업률을 보였다.

유지취업률은 2015년 6월 기준 71.8%에 달하면서 취업률속도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대가 프라임사업,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가 주요 사업에 선정돼 든든한 성장동력을 마련한 것은 물론, 선 순환적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및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창의인재에 지속적으로 양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산=문정근기자